

특별기획

# 늦가을 무주서 즐겨요

마을로 가는 봄, 여름, 가을축제를 개최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무주군이 29일부터 마을로 가는 늦가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늦가을의 낙엽바람과 초겨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1월 13일까지 진행될 이번 축제에는 무주군 관내 15개 마을이 함께 자신들의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도깨비 집 찾아 동네 한 바퀴'를 테마로 하는 무주읍 서면마을에서는 샅다리 걷너기와 도깨비 집 둘러보기 등을 즐겨볼 수 있으며 바비큐와 모시국수를 맛볼 수 있다.

'그곳에서의 휴! 10송지 마을여행'을 준비한 무풍면 송지마을에서는 표고버섯농장 체험과 요구르트 목장 둘러보기, 삼국축제와 함께 취나물 밥도 먹어볼 수 있다.

설천면 삼도봉마을(취나물밭)에서는 '자연그대로, 고랭지 꽃갈매리'를 준비하며 옛길 트레킹도 해볼 수 있다. '타입머신 타고 옛날 속으로' 가는 호룡마을에서는 달걀 꾸러미와 짚신 만들기, 토호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산채비빔밥이 준비된다.

'느림으로 치유하는 적상산 하늘길 정원' 적상면 내창마을에서는 밥상머리 산채정식과 치즈피자,



**군, 마을로 가는 축제 29일~11월 13일까지**  
**먹거리 · 볼거리 다양**

체험산책 등을 코스별로 즐겨볼 수 있으며 괴목마을에서는 즉석 기능성 고추장 만들기, '달달치 마을여행' 초리마을(취갈국수)에서는 흰떡만들기와 마을 8경 산책하기, 치목마을(시골밭상)에서는 삼베짜기를 체험해볼 수 있다. 안성면 명천마을(잔치국수)에서는 '물 숲 명천에서 힐링하기'를 주제로 천마수확체험을, 외당마을

(오분도밭)에서는 목공체험과 빈집수리, 수수경단 만들기, 죽장마을에서는 '머투의 밭그레한 변신'을 테마로 머투와인과 짬 만들기, 오분도 주막밭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진원마을(떡볶이)에서는 '킹콩의 매운 맛을 바꿔'를 테마로 고추장과 떡볶이 만들기, 구량면 생태계 관찰 프로그램을 즐겨볼 수 있으며 '빨간 손의 여승' 중산마을(돼지고기 수육 등)에서는 김장과 반찬만들기 체험이 기다린다. 낙화권역(바비큐)에서는 밤 껍질 조명만들기, 이끼로 자기 이틀쓰기를 해볼 수 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작은 여행'을 준비한 부남면 도소마을에서는 템플스테이와 연잎 밥, 연잎 차 만들기 등이 가능하다.

군 김오수 농촌관광 담당은 "마을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체험, 숙박, 음식 프로그램들을 즐기며 무주의 가을을 만끽해보시길 바란다"며 "봄, 여름, 가을축제를 진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주민들에게는 공동체 활성화와 농외소득창출의 기회를, 관광객들에게는 양질의 지역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쇄신해야”

이성수의원, 5분발언서 촉구



천만원에 달하는 재원으로 ▲영어 학원, 학습지, 화상영어 수강료로 월 5만원씩 6년간 지원 ▲초등학교 6학년 필리핀 어학연수 비용 지원(항공료 제외) ▲청소년 수련관으로 업무(진로도 등) 이관을 제안했다.

무주군의회 이성수의원(사진)은 26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에 만연한 교육이주 현상과 국제화교육센터의 안일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교육환경(영어교육)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대도시로 교육이주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 인구 급감의 한 가지 원인"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정상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2009년 전국적인 바람을 타고 교육비 전액 지원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표방하고 개원한 무주국제화교육센터를 폐쇄하고, 연간 6억 5

천만원에 달하는 재원으로 ▲영어 학원, 학습지, 화상영어 수강료로 월 5만원씩 6년간 지원 ▲초등학교 6학년 필리핀 어학연수 비용 지원(항공료 제외) ▲청소년 수련관으로 업무(진로도 등) 이관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혼선이 예상되므로 당분간은 현재의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체계를 유지하되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한 방학캠프 운영 ▲한 학년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공평한 기회 제공 ▲중학교 3학년 대상 인재육성사 관학교 지원과 같은 운영방식의 개선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북농업기술원장, 진안농기센터 방문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김학주 원장은 취임 1개월을 맞아 지난 25일 진안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진안 방문은 시군 농촌진흥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현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소통과 대화를 통해 농촌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명하 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올해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기술센터 내 주요 시설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산물 가공사업장을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김 원장은 2016년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 사업으로 육성한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장인 메이디 로얄 홍삼을 방문하여 상품 개발 현황과 유통 판매 상황 등 운영 시스템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각종 시범사업 현장에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쓰고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나가기"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박차

내년도 공모 3개분야 선정... 1억 3천만원 지원받아

완주군이 주민과 함께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2017년도 문화재 활용사업에 공모, 향교·서원, 전통산사, 무형문화재 3개 분야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총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완주향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활용 사업으로는 완주군 최초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군은 향교·서원 문화재 및 전통산사, 중요무형문화재 활용사업 등을 통해 완주군의 역사문화재를 전국적

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와 함께 문화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정체성 정립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고산향교에서 '한시쓰기', '전통자수 체험', '전통 초상화 그리기' 등 전통적 윤리관과 선비의 덕목에 관한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전통유교문화에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예정이며, 전통산사 활용사업은 '송광사 문화재와 떠나는 '나비재' 인문학 여행'이란 주제로 '호국불교의 내용 및 정신', '송광사 유물도 본 조선 후기 백교조각 및 중건불사' 등 관련 조각과 현장답사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

영된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활용사업은 완주군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소목장 소병진의 주관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 목가구 '전주장의 유래와 문양', '전통 연장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생활용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문화예술과 이용철 과장은 "이번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은 계기로 완주군 문화재를 단순 보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활용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완주군의 새로운 문화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내일 완주 소양 국화축제 개막

완주군 소양면 제11회 사랑나눔 국화축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올해 11회를 맞는 사랑나눔 국화축제는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강시복)'이 주관하고 소양면과 소양농협이 후원하는 행사로 볼부터 정성스레 키운 국화꽃 향기를 선보인다.

이번 국화축제에는 대국과 소국, 분재와 현애 등 100여 점 이상이 출품돼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국화축제 기간 동안 판매한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증행진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강시복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는 "국화축제는 순수한 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행사이며, 판매수익금

은 불우이웃과 장학금으로 쓰여진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청년종합실태 조사 추진

완주군이 '청년과 함께하는 완주'를 만들고 청년 눈높이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종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군은 청년현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선 6기 완주형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완주군 청년종합실태조사를 26일부터 2개월 동안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내 만 19세~39세 이하 청년들 중 유효표본 집단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

여 청년층의 실태와 청년목구 등을 정확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당사자들이 실태조사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인식과 해결의 주제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능복합도시인 완주의 특성을 반영해 농촌지역, 도시지역 및 다양한 계층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청년창업자, 농어촌 지역 청년 등을 그룹화 하여 지역별, 계층별로 청년문

제에 대한 현안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과제 및 정책을 추가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이찬준 공동체협력과장은 "단순 일자리 대책을 넘어, 지역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만들고 청년층 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청년인구는 2015년 기준 2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완주= 이종복 기자

## 장수 사회복지협, '좋은이웃들' 자원봉사자 교육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6일 10시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 회의실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이웃을 찾아내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좋은이웃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지

난 봉사자격을 점검하고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ZERO 장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좋은이웃들 행복한 소통"이라는 자원봉사자의 자세 등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고강영 협의회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복지나눔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3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6일 제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과 28일 양일 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7일에는 상임위원회를, 28일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26일 제1차 본회의는 정옥주(부의장) 의원이 저소득층 주택화재보험 지원과 농업관련 보조비를 고려, 배성기(운영행정위원장) 의원이 관공저차 지역 구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김남기(산업건설위원장) 의원이 농산물 유통안정기금의 조속한 확보대책과 유치전적지성역화사업 추진에 대한 군정 질문을 실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흥)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규태)를 구성해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7개 읍·면 34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실태조사는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 사업의 효과 및 예산 낭비요인 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고, 마을 단위 LPG배관망 보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가계부담경감과 도농간 에너지 복지격차 완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매우 잘 된 사례라 할 수 있겠고, 앞으로도 군단위 정수용 LPG배관망 지원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 모두가 값싸고 편리한 에너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고 하였으며, 특히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 사회기반시설 추진의 적정성과 관리, 관광지 활성화, 주민편익시설 조성 및 이용 관리방안에 대해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과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경찰, 산상간담회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26일 오후 본서와 파출소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숙마을에서 으름수풀까지 산행하는 산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상간담회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산행을 통해 소통과 화합하는 시간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최 서장은 "부임 이후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 아쉬웠는데 오늘 직원들과 마을을 돌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생각보다 직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산상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이 건강도 챙기고 지역치안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 국유림관리소 산불조심기간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방지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 감시 및 초동진화 대세를 구축하기 위해 27일까지 산불전문진화대원 37명을 교육·산불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산불진화장비 등 산불방지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등 유사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가을철 산불 주원인이 입산자 실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산불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입산통제구역 등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산불예방을 통해 숲의 기능을 제공하는 등 정부 3.0 구현을 위해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